

# 日帝下 抗日獨立運動團體 「民團組合」

權 大 雄

〈차 례〉

- |                         |                 |
|-------------------------|-----------------|
| 1. 머리 말                 | 4. 民團組合의 組織과 構成 |
| 2. 1910年 前後 國權恢復運動의 再編成 | 5. 民團組合의 活動과 理念 |
| 3. 民團組合의 結成             | 6. 맺 음 말        |

## 1. 머리 말

일제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sup>1)</sup> 물론 논자에 따라 그 기점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sup>2)</sup> 대체로 일제의 침략에 대한 저항으로서 의병전쟁이나 계몽운동을 민족해방운동의 기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말의 의병전쟁을 계승하여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 권 대 응 : 大慶專門大學 教授, 주논문 —— 朝鮮國權恢復團研究, 1910年代慶尙道地方의 獨立運動團體研究.

- 1) 崔永禧, <3·1運動에 이르는 民族獨立運動의 源流>, 《3·1運動 50周年記念論集》, 1969. 尹炳奭, <1910年代의 韓國獨立運動 試論>, 《史學研究》第27號, 1973. 愼鏞廈, <新民會의 獨立軍基地 創建運動>, 《韓國文化》第4輯, 1983. 趙東杰, <安東儒林의 渡滿經緯와 獨立運動上의 性向>, 《大丘史學》제15·16合輯, 1978. 趙東杰, <義兵運動의 韓國民族主義上의 位置>(上, 下),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1·3, 1986, 1989.
- 2) 趙東杰, <韓末啓蒙主義의 構造와 獨立運動上의 位置> (國民大 韓國學研究所, 《韓國學論叢》第11輯, 1989)에서 趙東杰은 한국독립운동사의 기점을 1894년의 甲午義兵과 東學農民戰爭에 두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에 저항하는 독립운동단체로서 民團組합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의병전쟁을 계승한 민단조합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그것이 항일독립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결성과 인적구성, 그리고 그 활동을 밝히고자 한다.

한말 의병전쟁을 계승한 독립운동단체는 민단조합외에도 풍기의 광복단과 이것을 계승한 대한광복회, 대한독립의군부, 조선독립후원의용단 등이 있다. 이미 대한광복회와 대한독립의군부에 대한 연구는 선행자들의 주목 속에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sup>3)</sup> 그 결과 조직·활동·이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민단조합이나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체는 활동 초기에 전모가 노출되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동하기도 전에 일제에 의해 파괴되었고, 관련자료의 발굴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자료의 광범위한 수집과 분석, 그리고 현지답사를 통한 자료의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상을 조망하고자 한다.<sup>4)</sup> 특히 1910년 한일합

3) 趙東杰, <大韓光復會의 結成과 그 先行組織>, 《韓國學論叢》第5輯, 1982. <大韓光復會研究>, 《韓國史研究》42, 1983. 朴永錫, <大韓光復會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1, 1986. 申圭秀, <大韓獨立義軍府에 대하여>,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8. 李相燦, <大韓獨立義軍府에 대하여>, 李載勳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90.

4) 민단조합과 조선독립후원의용단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자는 1993년 7월 22~23일 양일간 문경·영주지역을 현지조사하였다. 기존자료가 미흡한 실정이었기에 무엇보다 철저한 현지조사와 분석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점촌읍과 문경군 일대에 산재한 관련자들을 탐방하여 면담하였다. (1) 店村·聞慶文化院의 申東澈(향토사연구소 소장)과 鄭龍淳(점촌문경문화원 사무국장), (2) 麻城面 下乃里(이 마을은 경주김씨 집성촌으로 조선독립후원의용단사건에 연루된 金東旭의 고향이다. 현재 김동욱의 후손은 이 마을에 없으며, 마을 어른들에게 대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였다.) (3) 籠巖面 葛洞里(이 마을은 籠巖面 泔池里가 89년 수해로 수몰됨에 이주단지로 조성되었다. 조선독립후원단의 申泰植의 증손 申鉉培를 면담하였다.) (4) 東魯面 稠松里(民團組합의 李東下(鳴田里)와 金洛文(石項里)의 후손이 없어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간송리 天柱에 거주하는 河正學을 면담하였다. 하정학은 李東下와 金洛文의 활동을 선양하여 독립유공자로 추서하는 데 앞장섰다.) (5) 永順面 梨木里(이 마을은 일명 白佛里로 민단조합사건에 연루된 이강년의진의 軍資長 崔旭永이 살았다는 곳이다. 현재 건물과 백포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이목리에는 최욱영의 흔적이 전혀 없다. 永順面 浦內里 출신으로 보인다.)

병 이후 이들의 활동을 조사하여 의병전쟁의 계승으로서의 항일독립운동이었음을 구명하고자 한다.<sup>5)</sup>

## 2. 1910年 前後 國權恢復運動의 再編成

일제는 국권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민족지사들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은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민족지사들을 폭도로 규정하여 처형하거나 투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으로는 安岳事件과 양기탁·주진수 등의 保安法違反事件, 그리고 소위 105人 事件을 통해 新民會員 600여 명을 체포·투옥하는 新民會事件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武斷統治로 불리는 民族抹殺政策이 시작되어 1919년까지 감행되었다.

일제의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감행된 武斷統治는 憲兵警察制 創設과 陸軍 및 海軍의 駐屯을 통해 무력이 뒷받침된 軍政體制였다. 1910년 9월 '朝鮮駐劄憲兵條例'에 의거하여 창설된 헌병경찰제도는 헌병으로 하여금 군사 경찰뿐만 아니라 소위 일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행정까지 담당케 하는 憲兵支配體制로 구축한 것이었다. 1910년 1,106개소의 헌병경찰기관은 1911년 1,585개소로 급증하였고, 헌병경찰은 1910년 7,900명에서 1911년 13,971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1918년 9월 헌병경찰기관은 1,786개소, 헌병경찰은 14,341명이었다.<sup>6)</sup> 이중 1911년 경찰관서의 경우 경북 64개소(인원 441명), 경남 68개소(인원 454명)이고, 헌병대의 경우 경북 69개소(인원 322명), 경남 49개소(인원 555명)였다. 그리고 1918년 경찰관서의 소속 인원만 보더라도 경북 568명, 경남 547명이고, 헌병대 소속 인원은 경북 813명, 경남 421명이었다.<sup>7)</sup>

당시 헌병경찰의 담당업무는 경찰직무뿐만 아니라 일반행정까지 미

5) 民團組合事件의 관련자를 분석하기 위해 《雲崗先生倡義日錄》 등 의병관계자료를 분석하였다. 大韓光復會나 그와 관련된 榮州의 大東商店事件, 朝鮮獨立後授義勇團事件 등에 연루된 인물들의 의병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의병관계자료를 광범하게 분석하였다.

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7年(1918), pp. 474~477.

7)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 7年(1918), pp. 474~477.

치는 광범위한 것으로 한인의 일반생활 전반에 관계되는 것이었으며,<sup>8)</sup> 식민지 통치의 원동력이 바로 헌병경찰의 권력이었다. 동시에 헌병경찰과 전시체제의 사단배치로 감시체제를 갖춘 것은 전세계에 유례없는 軍事支配體制였다. 뿐만아니라 集會取締令(1910.8), 保安法(1907.7), 出版法(1909.2), 新聞紙法(1907.7), 警察犯處罰規則(1912.3), 朝鮮笞刑令(1912.3), 朝鮮刑事令(1912.3), 指紋法 등 각종의 惡法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체포·구금·투옥하였다.<sup>9)</sup>

일제의 무단통치와 더불어 식민지 교육은 天皇制 일본의 忠良한 臣民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私立學校令(1908.9), 書堂에 關한 訓令(1908.8), 朝鮮教育令(1911.8), 私立學校規則(1911.10), 書堂規則(1918.2) 등의 법령은 사립학교와 서당에 대한 간섭과 감독을 통해 식민지 노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 목표에 합치하지 않는 일을 사립학교가 하면 탄압하고 폐쇄하였다. 1908년 4,5천여 개교에 달하던 사립학교가 1910년 8월에는 2,250여 개교로 줄었고,<sup>10)</sup> 1914년에는 1,068교로, 1919년 5월에는 749교로 감소하였다.<sup>11)</sup>

한편 일제는 조선경제의 재편성을 위해 土地調査令과 會社令을 공포하여 식민지 경영의 기초공작을 수립하였다. 1910년 3월부터 1918년 11월에 걸쳐 2,040萬坪의 경비를 들여 실시한 토지조사의 결과는 지금까지 토지점유자이며 경작자였던 농민의 8할이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민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또 회사령은 1912년 12월 공포되어 모든 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조선총독의 허가와 감독 아래 들어갔다. 이

8) 小森德治, 《明石元二郎》上卷, 1928. 臺灣日日新聞社, p. 449.

憲兵警察의 職務는 1. 諜報의 蒐集, 2. 義兵의 討伐, 3. 將校. 下士(警視·警部)의 檢事事務代理, 4. 犯罪의 卽決, 5. 民事訴訟의 調整, 6. 執達吏의 業務, 7. 國境稅關의 業務, 8. 山林 監視, 9. 民籍事務, 10. 外國 旅券, 11. 郵便 護衛, 12. 旅行者의 保護, 13. 種痘 實施의 獎勵, 14. 屠獸의 檢査, 15. 輸出牛의 檢疫, 16. 雨量의 觀測, 17. 水位의 測量, 18. 警備船에 關한 業務, 19. 害獸의 驅除, 20. 墓地의 取締 21. 勞動者의 取締, 22. 在留禁止者의 取締, 23. 日本語의 普及, 24. 道路改修의 業務, 25. 法令普及의 業務, 26. 納稅業務의 諭示 등.

9) 吳世昌, <1910年代 滿洲韓人의 反日獨立運動>, 《한국민족운동사연구》8, 1993. 10.

10) 朝鮮總督府 學務局, 《朝鮮教育要覽》, p. 12.

11) 吳世昌, 《1910年代 滿洲韓人의 反日獨立運動》, p. 34.

식민지 경제정책은 일본의 상품시장으로서 조선을 재편성한 것이었고, 한국 민족자본의 몰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결국 일제는 친일적인 지주와 자본가를 양산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와 함께 日帝는 親日勢力을 조성하여 民族意識을 와해시키는 破壞工作을 획책하였다. 이것은 한말 일본의 침략과정에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을 통하여 구국운동을 전개한 反日勢力을 親日化시키기 위한 것으로, 一視同仁의 구호 아래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이었다. 이리하여 한말 구국운동을 전개했던 인사들이 항쟁의 대열에서 탈락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여 친일화하였다.

義兵戰爭系列의 경우, 일제의 친일화 정치공작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었다. 이것은 한말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저항조직을 형성하고 반일구국운동을 전개한 유림들이 식민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sup>12)</sup>

啓蒙運動系列의 경우, 친일화 공작으로 한층 현실에 안주하거나 친일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계몽지식인으로 1920년대 소위 문화운동에 참여하고 자치운동에 참여하여 친일화 경향을 보여 준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지주·상인·중인 출신의 신흥자본가들의 경우에는 계몽운동기에 보여 주었던 계급적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한층 현실에 안주하거나 친일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신흥자본가들은 총독정치에 봉사하는 官吏로서, 식민지 통치권력의 비호를 받는 친일지주 및 친일자본가로 일제에 예측되어 갔다. 따라서 이들이 민족운동을 전개하더라도 그것은 일제와의 일정한 타협 속에서 政治·産業·教育運動을 모색하는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韓國併呑과 支配에 반대하는 團體와 個人의 투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일제의 통치하에서 생존을 거부하고 自決殉國함으로써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였고, 納稅拒

12) 張秉吉, <朝鮮總督府의 宗教政策>, 정신문화연구원, 《정신문화》, 1985 / 여름. 劉準基, <1910년대 日帝의 儒林親日化政策>,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 1993. 10.

13) 金容燮, <韓末·日帝下の 地主制>, 《韓國史研究》 19, 1978. 朴贊勝,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否·恩賜金拒絕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를 반대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竊盜犯·強盜犯·治安違反犯·謀殺犯·謀反犯·內亂犯으로 민족지사들을 체포·구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굴욕적인 생존을 거부하고 한치의 타협이나 굴종도 불가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었다.<sup>14)</sup>

1910년 국권상실과 함께 실시된 무단정치로 인해 민족지사들은 國內에서 國權恢復運動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滿洲의 西間島와 北間島, 露領의 密山府 등의 獨立軍基地로 활동무대를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다. 1910년을 전후해서 만주나 노령으로 망명하는 인사들의 목표는 만주와 노령을 연결하는 항일전선을 구축하고 國內로 進攻하는 것이었고, 그 전제조건은 바로 滿洲獨立運動基地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西·北間島와 露領의 密山府를 중심으로 한인사회를 형성하고 서로 연계되어 항일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滿洲 獨立運動基地 建設 計畫은 의병전쟁계열의 경우 유인석의 去之守義의 原則 즉 持久戰을 위한 根據地建設의 構想에 입각한 獨立運動路線에 따른 것이었고, 계몽운동계열의 경우에는 新民會의 國외로 망명하여 獨立軍基地를 창건한다는 獨立戰爭戰畧에 따른 것이다.<sup>15)</sup>

義兵戰爭系列은 소위 南韓大討伐作戰으로 큰 타격을 받고 국내에서의

14) 朴杰淳, <3·1運動期 國內 秘密結社運動에 대한 試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p. 6. 여기에서는 1910년 이후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탄압을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민사·형사·예심 및 검사수사사건 접수 건수

연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예심 사건	검사수 사사건	민사잡 사건	형사잡 사건	검 사 국 공조사건	총 계
1910	26,079	7,922	232	14,250	10,672	490		59,646
1911	32,015	10,663	258	19,134	13,178	941		76,189
1912	37,195	13,525	434	24,937	27,692	368	1,347	105,498
1913	38,539	16,927	528	31,281	52,542	467	1,627	141,911
1914	36,680	17,819	585	34,834	122,127	547	2,178	214,770
1915	36,805	20,048	580	38,856	244,219	526	2,437	343,471
1916	34,825	23,884	592	46,607	378,176	503	2,548	487,137
1917	35,029	29,142	655	57,375	684,070	678	2,439	809,388
1918	34,939	29,150	664	61,074	925,935	549	2,770	1,055.4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0 - 1918.

15)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大韓民國公報處, 1949. 朴永錫, 《韓民族獨立運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근거지를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물론 의병은 한말과 같은 대규모의 유격전은 아니라도 소규모적이고 산발적인 투쟁을 계속하기도 하였으나,<sup>16)</sup> 국내에서 활동기반을 상실한 대부분의 의병부대는 만주와 노령으로 새로운 근거지를 찾아 이동하였다. 柳麟錫부대는 輯安·通化지방으로, 李鎮龍부대·趙孟善부대·朴長浩부대는 長伯·撫松·輯安·臨江지방으로, 洪範圖부대와 車道善부대는 훈춘·연해주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이들 의병부대는 대부분이 국내의 대일전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새로운 기지를 찾아 만주로 이동했으므로 군세의 재편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분간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얻고 軍資金을 蓄積하며 衣食問題解決을 위하여 兵農一致의 屯田的 開墾農業에 주력하면서 軍事訓練을 하였다.<sup>17)</sup>

啓蒙運動系列의 경우에도 武斷政治로 특징지워지는 植民統治 속에서 海外로 망명하거나 지하로 잠적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일제의 조직적인 彈壓과 懷柔로 식민지 통치정책에 屈從하여 妥協하는 인사들도 있었지만, 굴종과 타협을 거부하고 많은 인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것은 한말 계몽운동세력들이 목표로 하였던 실력을 양성한 뒤 무력투쟁을 통해 國權恢復을 이룩한다는 方略을 계승한 것이다. 啓蒙運動系列은 신민회의 독립운동기지건설계획에 따라, 그 선발대로 李會榮·李始榮·李

動史研究》，一潮閣，1982. 慎鏞廈，〈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上·下)，《韓國學報》第8·9輯，1977. 姜在彥，〈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문제〉，《근대한국사상사연구》，1983. 吳世昌，〈在滿韓人の 抗日獨立運動史研究〉，1988. ———，〈1910年代 滿洲獨立運動基地의 建設〉，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4，1988. ———，〈1910年代 滿洲韓人の 反日獨立運動〉，《한국민족운동사연구》8，1993. 10. 金道亨，〈大韓帝國末期의 國權恢復運動과 그 思想〉，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6) 1910년대 국내의 의병투쟁은 1909년 일제의 소위 “南韓大討伐作戰”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1910년 국권상실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 시기의 일부 義兵의 殘存勢力은 국권회복을 위한 義兵을 再起하고자 軍資金의 모금과 同志의 규합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공격대상으로 일부 親日地主나 富豪들도 목표로 삼긴 했으나, 대개 憲兵分遣所, 警察署, 面事務所, 國境守備隊, 鑛山 등을 습격하였다.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編》(一), pp. 50~53)

17) 吳世昌, 前揭書, p. 63

石榮 형제와 李東寧·李相龍·金昌煥·朱鎮洙 등 7세대가 1910년 말부터 1911년 초에 이주함으로써, 서간도 이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sup>18)</sup>

경북지방의 滿洲移住는 啓蒙運動系列과 기맥을 통하고 있던 義兵戰爭系列의 선각적인 유생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910년 강원도 울진의 朱鎮洙, 평해의 黃萬英 등이 이주하면서 李相龍·金東三 등의 이주자가 속출하였다.<sup>19)</sup> 이들은 英陽·安東·閔慶·尙州 등지를 경유하여 金泉으로, 혹은 寧海·浦港을 경유하여 大邱로 나와서 滿洲行 기차를 타는 두 길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그 통로에 해당하는 英陽·寧海·奉化·禮安·安東은 물론 盈德·浦港·慶州·榮川 등 각지에서 滿洲 移住의 열기를 유발시켰다.<sup>20)</sup>

1910년을 전후해서 경북지방 인사들의 만주 이주는 매우 활발하였다. 李相龍·金東三을 비롯하여 安東·寧海方面的 朴慶鍾(영해)·金衡植(안동)·金正植(안동)·李鳳義(안동)·李濟衡(안동)·金圭植(안동) 등이 도만하였다. 이들의 영향력은 도내 각지에 미쳐 1911년에는 2,500여 명이 각군에서 이주하였다. 경북 북부지방 각군에서 義兵과 관련을 가진 李東下(이강년의진, 문경)·姜鳳周(문경)·梁濟安(金山·山南義陣, 영일)<sup>21)</sup>·朴尙鎭(경주)·禹在龍(山南義陣)·林龍相(혹 林中虎, 山南義陣)·權寧萬(眞寶義陣, 진보)·蔡基中(상주)·趙鏞弼(李康季義陣, 예천)·尹昌夏(예천)·鄭鎭華(예천)·朴慶鍾(영해, 신돌석의진) 등이 도만하였다.<sup>22)</sup> 그의 韓溪 李承熙(성주)는 연해주로,<sup>23)</sup> 趙萬基(영양)는 李相龍, 金東三을 따라 만주로,<sup>24)</sup> 柳寅植(안동)도 만주로,<sup>25)</sup> 李鍾岱(울진) 일가도 朱鎮洙의 권유

18) 吳世昌, 上揭書, p. 38.

19) 趙萬基, 《西征錄》

20) 吳世昌, 〈獨立運動〉, 《慶尙北道史》中卷, 1983.

21) 梁濟安은 山南義陣에 참여하였으나 鄭煥直·鄭鏞基 부자가 전사한 뒤 禹在龍·孫星運 등과 再舉코자 하였으나 失敗하고, 閔宗植의 洪州義兵陣에 일시 참여했다가 은거지인 斗磨里로 돌아왔다. 국권상실 후 大邱의 李慶熙와 함께 渡瀾하여 長伯縣에서 활동하면서 國內의 張志淵과 연락하기도 하였고, 또 南滿洲에 있던 安孝濟·孟甫淳·梁基卓·李炳錕·李世永·李相義 등과 래왕하며 활동하였다. 그후 1913년 초에 國內 連絡의 任務를 띠고 國內로 潛入하였다. (梁漢緯, 《梁碧濤公濟安實記》, 吳世昌, 〈碧濤 梁濟安의 抗日救國運動〉, 尹炳爽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1990.)



를 받고 만주로 이주하였다.

한편, 계몽운동과 관련을 가진 安熙濟(大東青年團, 의령)·徐相日(朝鮮國權恢復團, 대구) 등도 도만하였다.<sup>26)</sup> 이들은 의병전쟁계열에서 출사하여 계몽운동쪽으로 기울어진 李相龍·柳寅植·金東三 등과는 달리 일시 도만하여 노령이나 만주의 獨立運動 狀況을 둘러보고 귀국하여 국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啓蒙運動에 있어서 產業振興의 방안에 따라 商業에 종사하는 한편, 國外獨立運動에 대한 지원으로 軍資金의 調達과 獨立軍의 募集 활동을 전개하였다.<sup>27)</sup>

그뒤에도 경상도 각처에서 保守의인 儒林의 滿洲 및 露領移住와 來往은 계속 이어졌다. 1912년 정월 칠곡 張錫英의 만주 및 노령지방 여행이나 진주 趙貞奎의 만주 이주는 주목된다. 이것은 이미 망명하여 密山府에서 李相高과 같이 韓興洞을 건설하여 獨立運動基地를 닦은 李承熙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sup>28)</sup> 1912년 정월부터 4월말까지 행해

22) 그의 산남의진의 南圭喆·金震榮·洪龜燮·趙善裕·崔致煥·李好仁·李純久·成樂熙 등과《山南倡義誌》下,〈諸公實記〉 신돌석의진의 元世燦·元世巖·元世明·元世祐 4從班 등이 만주·노령 등 해외로 망명하였다.(盈德郡,《救國倡義錄》)

23) 한계 이승희는 1908년 海參崴(블라디보스톡)로 망명하여 1916년 2월 타개할 때까지 블라디보스톡·만주 길림성 봉밀산·러시아 興凱湖 부근의 新峙·遼東·瀋陽·北京·山東牛島·曲阜·밀산부 한흥동 등지를 왕래하며 荒田을 廣買 開墾하여 한인의 생업 및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李相高·柳麟錫 등과도 교유하였다. 특히 그는 1909년 블라디보스톡에 망명하고 있던 李相高과 협력하여 美洲 國民會에서 부쳐온 돈으로 길림성 밀산에서 황전을 광매하여 개간하고, 한인 이주자들을 위한 교육자금으로 할 것과 이를 바탕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한흥동을 건설하였다.(《韓溪遺稿》卷 7,〈韓溪先生年譜〉)

24) 趙萬基는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한양조씨 玉川 趙德麟의 宗孫으로 당시 派內一族을 거의 동반하고 도만하였다. 그의 渡滿시 日記인 《西征錄》에 따르면, 그는 1911년 2월 도만하여 이미 만주에 들어가 있던 울진의 황만영, 안동 도곡의 이상룡 등과 懷仁縣에서 합류하였으나 정착에 실패하고 귀환하였다.(趙萬基,《西征錄》 필사원본)

25) 柳寅植은 1911년 여름 도만했었는데, 그해 겨울 家産을 정리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일경에 피검되어 滿洲 移住를 단념하고 말았다.(趙東杰,《安東儒林의 渡滿 經緯와 獨立運動上的 性向》)

26) 慶北警察部,《高等警察要史》, p. 184.

27) 權大雄,〈朝鮮國權恢復團 研究〉, 영남대,《民族文化論叢》第9輯, 1988.

28) 張錫英은 郭鍾錫·李承熙와 같이 寒洲의 門人으로서 그들과 함께 嶺南儒生 300

진 張錫英의 여행목적은 자신의 망명지를 물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滿洲와 露領 각처를 순방하며 이미 망명하고 있던 徐世忠·孟輔淳·盧相益·盧相稷·李承熙 등을 차례로 만났다.<sup>29)</sup> 趙貞奎는 1913년 4월 동지 趙昞澤·金相鈺·趙鏞薰과 도만하여 李承熙·安孝濟·盧相益·安昌濟 등과 한흥동 개척에 힘을 기울였다.<sup>30)</sup>

이러한 만주 독립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轉期를 맞이하는 것은 1913년 이었다. 왜냐하면 1911년 이후 1914년까지 이어지는 凶作과 水土病이라는 괴질이 유행하여 많은 이주민이 생명을 잃는 등 난관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며,<sup>31)</sup> 한편으로는 세계정세의 변동에 따른 독립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특히 1911년 중국의 辛亥革命, 1914년 제1차 世界大戰 등 국제상황은 독립운동을 크게 자극하였다. 청왕조를 종식시키고 공화주의에 입각한 중화민국을 탄생시킨 신해혁명은 중국으로 망명했던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신규식·조성환·박상진·이관구·서상일·박병철·김병만 등은 신해혁명에 직접 가담하거나 그의 전개과정을 참관하였고, 그 결과 국내외 동포들에게 혁명의 이념인 공화주의 사상이 전파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의 산동출병으로 중일전쟁개전설의 고조 등 국제정세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개편을 통해 독립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인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sup>32)</sup>

이러한 상황에서 滿洲에서의 獨立運動基地建設은 國內의 적극적인 支

여명을 규합하여 “請斬五賊疏”를 올리기도 하였고, 1907년 전국에서 國債報償運動이 일어나자 漆谷郡報償會 會長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29) 張錫英, 《遼左紀行》

30) 趙貞奎, 《西川集》, 〈北征日錄〉 및 〈行錄〉. 西川 趙貞奎는 性齋 許傳의 학통을 계승하고 晚醒 朴致馥·端溪 金麟燮·勿川 金鐵祐 등과 교류하며, 한흥동건설에 힘을 기울이다가 1920년 귀국하여 타계하였다.

31) 朴昌和, 《省齋小傳》, 1951. 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上·下), 《韓國學報》第8,9輯, 1977. 趙東杰, 〈安東儒林的 渡滿經緯와 獨立運動上的 性向〉, 《大丘史學》第15,16輯, 1978. 吳世昌, 《在滿韓人的 抗日獨立運動史研究》, 1988.

32) 金喜坤, 《上海地域 韓國獨立運動團體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0. 李炫熙, 〈1910년대 臨政수립의 基盤構築〉—上海시대 韓中革命家の 聯合抗日基地造成—, 《한국민족운동사연구》8, 1993, 10.

援이 필요하였다. 滿洲 移住의 초기 단계에서 民族志士들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國內을 出入하였다. 國權상실과 함께 민족지사들의 渡滿과 이들이 만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國內潛入을 통한 國內·외의 연락은 매우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외의 독립운동세력은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와 비밀연락망이나 조직을 가져야만 했고, 그 군자금도 국내에서 조달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국내에 잠입했던 義兵戰爭系列의 인사는 朴尙鎮·蔡基中·禹在龍·李觀求·梁漢緯·金燦奎·李慶熙·梁濟安·李東下 등이었고, 啓蒙運動系列의 인사로는 徐相日·安熙濟·李始榮(又齋)·鄭舜永 등이 경상도 출신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도만 인사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방문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였고, 한편으로는 軍資金의 募集과 獨立軍으로 과견할 國內의 靑壯年을 모집하기 위해 秘密結社를 조직하였다.

1910년대 義兵戰爭系列과 啓蒙運動系列의 抗日獨立鬪爭은 秘密結社의 組織과 活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의병전쟁계열의 항일 독립운동단체로는 大韓獨立義軍府(1913), 豐基 光復團(1913), 大韓光復會(1915: 李觀求의 秘密結社, 榮州 大同商店事件), 民團組合(1915), 李增淵의 秘密結社(1916), 흥치교의 秘密結社(1916) 등이며, 계몽운동계열의 항일 독립운동단체로는 新民會(1906: 安岳事件, 105人事件), 大東靑年團(1909), 箕城불(野球)團(1914), 鮮命團(1914), 朝鮮國權恢復團(1915), 朝鮮産織獎勵契(1915), 自立會(1915), 朝鮮國民會(1917) 등이 있다.<sup>33)</sup>

전자는 대부분 義兵戰爭에 참여했거나 관련을 가진 의병전쟁계열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후자는 주로 啓蒙運動의 전개과정에서 성장한 新教育履修者, 基督教 등의 宗教人, 商人 등의 계몽운동계열에 의해 조직된 비밀결사단체였다.

義兵戰爭系列의 독립운동단체는 武裝鬪爭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무력을 준비하거나 海外 武裝鬪爭團體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33) 崔永禧, <3·1運動에 이르는 民族獨立運動의 源流>, 《3·1運動 50周年記念論集》, 1969. 尹炳奭, <1910年代의 韓國獨立運動 試論>, 《史學研究》第27號, 1977.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결사가 조직되는 지역은 의병전쟁이 치열했던 慶尙道 북부 및 忠淸道, 全羅道가 중심이 되었고,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義兵의 性向의 인물이 참가하고 있었다.

大韓獨立義軍府를 보면 崔益鉉義兵陣에 참가한 양반유생을 비롯하여 金山義陣, 李康季義兵陣, 許蔭義兵陣에 가담했던 인물들이었다. 林炳贊은 崔益鉉義兵陣에 참여하는 그의 文人이며, 呂中龍은 金山義陣, 姜鳳周는 李康季義兵陣, 李起商·李起永·鄭哲和 등은 許蔭義兵陣에 참여했던 의병들이었다.<sup>34)</sup>

그리고 豐基 光復團·民團組合·大韓光復會를 보면 대부분 李康季義兵陣에 참여하였거나, 1895년 乙未義兵의 각군 義兵陣 및 1906년 山南義陣 등에 참여했던 인물들이었다. 출신지역을 보면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충청도 및 경상도 일원에서 참여하고 있었다.<sup>35)</sup>

民團組合은 경상북도 문경을 중심으로 한 소백산 이남 낙동강 연변의 의병출신의 인사들이 조직한 비밀결사였다. 민단조합은 척사적인 북벽주의 단체로 국내의 의병세력과 연결을 통해 군사금의 모집이나 의병의 잔여세력과 연결되어 일제의 기관을 파괴하는 등 무력투쟁을 전개하고자 한 단체였다.<sup>36)</sup> 주목되는 것은 1914년 조직이 파괴되는 大韓獨立義軍府와 노선을 같이 하고 있었다.<sup>37)</sup>

李增淵의 秘密結社도 의협적 성향을 띠고 있어 의병적 성격을 보여 주며,<sup>38)</sup> 흠치교의 비밀결사도 독립의군부에 관련된 의병적 인사가 종교조직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여서 주목된다.<sup>39)</sup>

34)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pp. 177~179.

申圭秀, 〈大韓獨立義軍府에 대하여〉,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三英社, 1988. 李相燦, 〈大韓獨立義軍府에 대하여〉, 李載鼎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90.

35)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pp. 260~264.

36) 高第5044號, 大正 7年 3月 11日,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姜德相, 《現代史資料》25, 朝鮮 1, 〈3·1運動篇〉(1), pp. 50~53.

37)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民團組合'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管見〉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임병찬의 《돈헌유고》에 실린 〈관견〉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민단조합도 이 〈管見〉을 그 방략으로 채택한 것 같다. (李相燦, 위의 논문, p. 85)

38) 大正 6年 3月 20日, 警高機發第92號, 〈不穩者發見處分の件〉, 姜德相, 《現代

계몽운동계열의 독립운동단체도 무장투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그 실행과정은 계몽주의적인 방략에 따라 실력을 준비하며 객관적 여건이 성숙할 때를 기다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해외의 무장독립운동단체나 독립운동기지건설을 후원하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다.

大東靑年團과 朝鮮國權恢復團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그 조직망을 확충하여, 독립운동세력에 대한 군자금의 지원이나 무력투쟁을 지원하고 있어 계몽주의적 성향의 단체라 할 수 있다.<sup>40)</sup>

또 箕城불團<sup>41)</sup>·朝鮮産織獎勵契<sup>42)</sup>·自立會<sup>43)</sup>도 계몽주의적 성향의 단체로서 실업과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朝鮮國民會<sup>44)</sup>와 鮮命團<sup>45)</sup>은 계몽주의적 측면도 강하지만 독립전쟁론적인 방략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항일 독립투쟁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조직의 활동이 비교적 왕성했던 곳은 경상도 지역이었다. 대표적인 단체는 의병전쟁계열의 豐基 光復團·大韓光復會·民團組合과 계몽운동계열의 大東靑年團·朝鮮國權恢復團이었다. 이것은 의병전쟁이나 계몽운동을 통해 나타나 1910년대 항일독립운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史資料》25, 朝鮮 1, 〈3·1運動篇〉(1), pp. 21~23. 이 자료에 의하면 李增淵은 三國大都督, 黃海轍은 朝鮮大元帥, 崔鎮永은 朝鮮副元帥라 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있다. 즉, 1) 併合에 贊成한 舊韓國 大臣을 暗殺한다. 2) 朝鮮의 獨立을 祈한다. 3) 併合에 관한 條約文을 日本으로부터 回收한다. 4) 併合때 爵位를 받은 자들은 暗殺한다. 5) 建陽 元年(건양은 1896년이나 여기서는 비밀결사가 약속한 年號로 1916년) 12월말까지 이 決議事項을 실천한다.

39) 高第1122號, 大正 6年 7月 7日, 〈居住制限處分の件〉, 姜德相, 앞의 책, pp. 26~27.

40) 權大雄, 〈朝鮮國權恢復團 研究〉, 영남대, 《民族文化論叢》第9輯, 1988. ———, 〈大東靑年團 研究〉, 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1992.

41) 高警機發第422號, 大正 4年 3月 3日, 〈不逞鮮人靑年取調의件〉, 姜德相, 위의 책, pp. 1~4.

42)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pp. 260~264.

43) 《每日新報》, 1916. 3. 19, 4. 2.

44) 高第309號, 大正 7年 2月 18日, 〈秘密結社發見處分の件〉, 姜德相, 앞의 책, pp. 35~38. 강영식, 〈朝鮮國民會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집, 1989.

45) 警高機發第116號, 大正 6年 4月 6日, 〈不逞者發見處分の件〉, 姜德相, 앞의 책, pp. 24~25.

### 3. 民團組合의 結成

1910년대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義兵戰爭系列의 인사들을 보면, 첫째는 국내에서 의병투쟁을 계속하는 경우이고,<sup>46)</sup> 둘째는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sup>47)</sup> 그리고 셋째는 계몽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이다.<sup>48)</sup> 이러한 인사들은 1910년대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망명했던 의병전쟁계열의 인사들이 무장투쟁을 목표로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계획하에 국내로 잠입하면서<sup>49)</sup> 1913년 이후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3년 의병전쟁계열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豐基 光復團이 결성되었고, 1915년에는 豐基 光復團이 大韓光復會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1913년의 大韓獨立義軍府와 1914년의 民團組合, 그리고 1919년의 朝鮮獨立後援義勇團 등도 의병전쟁계열의 인사들이 결성하였다. 이러한 비밀결사단체는 1910년대 독립운동세력의 항일투쟁방략이 해외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급한다는 목적에서 결성된 것이라 하겠다.

46) 대한제국이 멸망한 1910년 8월 이후 의병은 국내 도처에서 게릴라적 최후항전의 모습을 띠고 전개되어,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항전하던 채응언의 의병이 1915년 7월 5일 종결됨으로써 의병전쟁의 끝을 맺게 된다. 이때 경상북도에서 활동하였던 의병장은 盧炳稷·史相斗·金炳一·崔旭永·金完泰·柳時淵·崔聖天·韓明萬·尹國範 등이다. (趙東杰, <義兵運動의 韓國民族主義上的 位置>(上·下),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 1, 3, 1986, 1989.

47)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의병장들이 1910년 이후 서북간도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전환하고 있었는데, 이강년의진에 참여했던 이동하(이정래)·조용필, 산남의진에 참여했던 우재룡·임용상(임중호), 신돌석의진에 참여했던 朴帶春 등을 들 수 있다. 그외에도 이상룡(안동의진)·박경중(영해의진)·허겸(허환)·권영만(진보의진)·박상진 등이 있다.

48) 의병전쟁에 참여했다가 계몽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인사로는 봉화진의진 琴錫柱·金漢圭, 김산의진의 呂永祚(韶)·呂中龍, 안동의진의 李相龍·金東三·柳寅植, 1906년 결성된 산남의진의 梁濟安 등이 있다.

49) 1910년 이후 도망했던 의병전쟁계열의 인사로 국내로 잠입한 경우는 朴尙鑣·禹在龍·趙鏞弼·鄭鏞華 등 대한광복회원, 李東下 등 민단조합원, 金燦奎 등 대한독립후원의용단원 등이 있다.

1914년 9월 결성된 民團組合도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으로 1918년 관련자 李東下·李殷榮·金洛文·李湮宰·李世永 등이 체포되면서 전모가 노출되었다.<sup>50)</sup>

民團組合의 결성은 李東下가 주도하였다.<sup>51)</sup> 李東下는 乙未義兵시 李康季의 聞慶義陣에 從事로 참여하였고, 1907년 이강년의 재봉기시에는 參謀와 軍資將을 역임하였던 人物이다.<sup>52)</sup> 1908년 6월 이강년이 淸風 鶴城에서 부상을 입고 피체된 뒤 의진이 무너지자 동지를 규합하여 1911년 12월 23일 渡滿했다가 1914년 9월 귀향하여 의병동지 김낙문·이인영·이식재 등을 규합하여 民團組合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民團組合은 의병세력을 기반으로 조직되었다. 이것은 경상도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결성된 豐基의 光復團이나 湖南·湖西, 그리고 경상도 일부를 중심으로 결성된 大韓獨立義軍府가 의병세력을 조직기반으로 했던 것과 같다.

문경지방은 지리적으로 소백산맥을 뒤로 하여 천혜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동로면 赤城은 동학교도의 근거지이기도 하며, 이곳에서 이강년의병진이 결성되어 풍기·순흥·예천, 그리고 충청도의 제천·단양 등지의 의병세력이 집결되어 활동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의병세력의 활동기반이 넓고 뿌리깊은 곳이라 하겠다.

#### 4. 民團組合의 組織과 構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民團組合은 한말 이강년의병의 잔존세력들이 조직하였다. 이들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동지의 모집과 자금의 조달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豐基의 光復團과 忠淸·全羅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大韓獨立義軍府와 연계

50)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9, 《三·一運動篇》(一), p. 50.

51) 위와 같은 자료.

52) 朴貞洙, 《雲崗先生倡義日錄》, 卷之一 13面 및 將任錄. 이 將任錄에 의하면 李東下의 본명은 李淨來로 體泉에 살았고, 前參奉으로 廣州李氏이다. 《廣州李氏世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단조합사건이 일경에 의해 노출되면서 체포된 李東下·李殷榮·金洛文·李湜宰·李世永 등은 이강년의진의 의병장 및 관련자들이었으며, 이들과 기맥을 통하여 활동하던 인물들도 같은 배경을 가진 兩班儒生들이었다.

이와 같이 民團組合은 이강년의진의 의병세력을 조직기반으로 하고 李東下는 忠淸南道, 李殷榮은 忠淸北道, 李世永은 慶尙北道를 담당하는 民團組合長을 맡게 되었다.<sup>53)</sup> 우선 이들을 검토히기로 하자.

李東下(1856. 10. 4~1919. 6. 1)는 醴泉(현 문경 지역) 출신으로 본명은 淨來이며 본관은 廣州로 廣城君 克堪의 후손, 秉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三從叔 秉夔에게 出系하였다.<sup>54)</sup> 벼슬은 參奉이었고 일명 春山이라고도 하였다. 그는 1896년 1월 이강년이 창의한 聞慶義陣에 從事로 참여하였고, 1907년 이강년의 재봉기시에는 參謀와 軍資將을 역임하였던 人物이다. 1908년 6월 이강년이 淸風 鵲城에서 부상을 입고 피체된 뒤 의진이 무너지자 이강년의진의 軍資長이었던 崔旭永·李明先 등과 再舉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1910년 국권상실 후 동지를 규합하여 1911년 12월 23일 渡滿했다가, 1914년 9월 귀향하여 의병 동지 김낙문·이인영·이식재 등을 규합하여 民團組合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1918년 1월 민단조합의 조직이 일경에게 노출되면서 체포된 그는 동년 5월 30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斷食, 1919년 6월 의식불명으로 석방되어 고향인 東魯面 鳴田里로 오던 중 고향마을이 보이는 소구리재에서 죽었다.<sup>55)</sup>

李殷榮은 十三道倡義所 總大將 李麟榮의 實弟로 義兵에 참여하였다. 1908년 1월 부친 사망의 부고를 받고 문경으로 하향한 이인영은 상주를

53)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54) <義士李東下先生記念碑>, 이 碑는 1989년 8월 15일 聞慶郡 東魯面 赤城里의 六·二五戰勝記念碑 옆에 面民 河正學·안재호씨 등에 의해 墓의 移葬과 함께 건립되었다. 역사적으로 現 聞慶郡 東魯面(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冬老)은 예천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 東魯面 蘇野와 赤城은 1894년 東學農民戰爭시 경북 북부 소백산 일원의 동학농민군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55) <義士李東下先生記念碑>, 大正 7年 刑第147號, <李東下判決文>, 政府記錄保存所 釜山支所, 文書番號 77-2639, 필름番號 21237 참조.



거처 충북 영동군 황간면 금계동에 이거하였으나, 1909년 6월 7일 피체되어, 동년 9월 20일 경성감옥에서 순국하였다.<sup>56)</sup> 이후 李殷榮은 1913년 林炳瓚이 조직한 大韓獨立義軍府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대한독립의 군부의 조직이 일경에 노출되어 관련자가 체포되면서 그는 경기·강원·충북·경북 등지를 전전하였다. 1914년 9월 李東下가 국내로 잠입하자 함께 民團組合을 결성하였다.<sup>57)</sup> 이동하가 民團組合을 결성하는 시기를 전후해서 황간에서 大韓獨立義軍府와 연결되어 군자금 조달을 모의한 것도 李殷榮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金洛文은 醴泉郡 甘泉面 출신의 양반유생으로 字는 春達, 號는 慕竹이며, 竹圃 金舜欽<sup>58)</sup>의 季男(第四子)이다.<sup>59)</sup> 1907년 3월 李康季이 제천에서 창 의하자 그의 막하로 들어가 丹陽·忠州戰鬪에서 패전하였고, 그 뒤 淸州戰鬪에서 패하고 체포되어 3년 6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sup>60)</sup> 1908년 9월 그의 부 金舜欽이 斷食 自殺한 뒤 1911년 李東下에게 자금을 제공하였고, 이동하의 부하인 盧炳稷·金東淵·姜秉秀 등과 기맥을 통하며 활동하였다. 1913년 林炳瓚이 조직한 大韓獨立義軍府에 가맹하기도 하였다.<sup>61)</sup>

56)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卷 1, 1986, pp. 845~850. 宋相燾, 《驥驢隨筆》, p. 128.

57)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58) 金舜欽(1840~1908.9)의 字는 樺華, 號는 竹圃, 本貫은 豐山으로 醴泉郡 甘泉面 眞坪洞(본적 안동군 풍산면 오미동)에 거주하였다.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1896년 聞慶義陣의 李康季, 金山義陣의 許菴 등과 討賊裝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장차 倡義하려 하였으나 義兵이 해산하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05년 이후 전국적으로 창 의의 열기가 확산됨에 次子 洛文을 李康季義陣에 참여시키고 物心兩面으로 성원하였다. 1908년 9월 斷食 殉國하였다. 遺戒로 「我死之後, 設殯儀禮, 應如他人, 奈何奈何, 使之勿設則於汝心, 必不安矣, 雖設殯哭泣, 所謂上食一禮, 未平倭之前, 期於勿行, 而平倭之後, 乃復設常禮以安吾天下之靈, 甚可甚可, 自吾身以上, 先世祀事, 倭曾在境之時, 土地所出, 不可用祭需, 平倭後乃復祭禮, 至望至望」이라는 말을 남기고 절명하였다. (《竹圃先生實記》 및 〈殉國烈士竹圃金先生略傳〉)

59) 慕竹 金洛文에 대한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현재 店村·聞慶文化院의 鄭龍淳씨와 東魯面 礪松里(天柱)의 河正學씨 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金洛文의 외손녀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한다.

60) 〈殉國烈士竹圃公略傳〉第四子洛文史

李湜宰는 李康季의 甥姪로 의병 봉기를 준비하고 있던 崔旭永을 비롯한 그의 부하 姜秉秀 등과 합의하고 堤川郡 近北面事務所를 습격 100圓을 탈취하였다. 그 뒤 충북·경북 일원에서 활동타가 金洛文의 권유로 민단조합에 가맹하였다.<sup>62)</sup>

李世永(1869.5~ )은 字가 佐顯, 本貫은 德水, 忠南 牙山에서 출생하였다. 16세에 梁憲洙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다가 1889년 英語公院에 입학하였다. 1895년 6월 이세영은 安昌植·李鳳學·鄭濟驥·鄭盈德 등과 大興의 朴昌魯집에서 舉義를 약속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8월 을미사변의 소식을 듣고 이세영은 자신의 집에서 홍주 유생 朴昌魯·鄭濟驥·宋秉稷·조병고·김정하 등과 창의를 결의하고 군사모집과 무기수집을 시작하였으며, 11월 28일 홍주 유생들은 이인영의 집에서 향회를 열고 이세영·이봉학·이상린 등은 洪州義陣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홍주의진이 결성된 지 하루만인 12월 4일 관찰사 李勝宇가 배반함으로써 김복한 등 총 23명이 구금되고, 이세영은 홀로 鴻山으로 빠져나가 1896년 2월 아관과천 후 鹽浦에서 창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897년 이세영은 陸軍參尉에 임명되어 陸軍正尉로 승진하였으나, 1906년 민종식의진에 참여하여 참모장이 되었다. 그러나 민종식의진이 1906년 4월 패함으로써 이세영은 피체되어 鐵島에 유배되었다. 1907년 7월 이세영은 이강년의진에 참가하여 監軍將이 되었고, 10월 이세영은 의병 90명을 거느리고 좌관장이 되어 활동하였으나,<sup>63)</sup> 1908년 이강년이 부상 피체되자 귀향하여 아우 昌永 및 李相麟 등과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誠明學校를 설립하고 1909년 大韓協會支會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국권상실 후 이세영은 1913년 大韓獨立義軍府에 가맹하였으나 일경에 그 조직이 노출되자 渡滿하였다.<sup>64)</sup> 이세영이 民團組合에 연루된 것은 만주에서 만난 李東下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61)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62) 위와 같은 자료.

63) 朴貞洙, <雲崗先生倡義日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 1권, 의병항쟁사자료집, p. 249.

64) 宋相燾, 《驥驥隨筆》, p. 48. 金祥起, 《甲午·乙未義兵 研究》, pp. 134~159.

이와 같이 민단조합에 연루된 주모자들은 李康季義陣에 참여하였던 양반유생들이다. 한편 민단조합과 연루된 豐基 光復團·大韓獨立義軍府의 관련인사, 그리고 의병의 잔존세력들을 살펴보면, 崔旭永·蔡基中·盧秉稷·金東淵·姜秉秀·姜鳳周·權秉七·趙鏞弼·金聲秋 등을 들 수 있다.

崔旭永(1854.10~1919.8)의 號는 淸溪, 字는 松山, 聞慶 출신의 의병 장이다.<sup>65)</sup>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을 수학하고 1907년 원주의 민공호와 기맥을 통하여 神林 安康里에서 창의하였다. 그후 제천·단양·영월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횡성에서 교전중 총상을 입었다. 1907년 8월 李康季義陣에 참가하여 軍資將이 되었고, 1908년 청풍 작성전투에서 이강년이 부상으로 피체되자 귀향하여 權泰俊으로 변성명하여 은신하였다. 1913년 2월 의병 金在性으로부터 高宗의 密書를 받고 부하들과 함께 군자금 모금과 동지 규합을 시작하였다. 1914년 11월 민단조합에 참여, 동년 12월 민단조합의 金洛文 등과 제천 근북면사무소를 습격 100여 円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1915년 6월 공주지방법원에서 강도교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루던 중 1919년 8월 옥사하였다.<sup>66)</sup>

盧秉稷(1855 ? ~ )은 尙州郡 化東面 以所里 출신이며 전직 參奉으로 李康季義陣의 佐從事로 참여하였다.<sup>67)</sup> 1908년 李康季이 被逮되고 의진이 무너지자 再擧를 위해 1911년 4월 李東下와 군자금 모집을 시작하였고,<sup>68)</sup> 1912년에는 그의 부하 姜鳳周·孫了得 등을 시켜 安東 河回의 참봉 柳時一에게 금품을 탈취하였다는 죄목으로 1913년 징역 10년을 받았다.<sup>69)</sup>

姜秉秀는 號가 信菴이며 聞慶 출신으로 일명 姜順必이다. 이강년의진

65) 주 4) 참조

66) 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권 1, pp. 947~948.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 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67) 朴貞洙, 《雲岡先生倡義日錄》, 將任錄

68)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69) 大正 2年 刑控 第251號, <判決>— 盧炳稷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pp. 551~553.

에 從事로 참여하여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 퇴각하는 중에도 李康季의 결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었다.<sup>70)</sup> 1911년 이동하 등과 국권회복을 위해 의병을 再起하고자 군자금 모집을 시작하였고, 1914년에는 李湜宰 등과 협의하여 堤川 近北面事務所를 습격하여 100여 冊을 탈취하는 데 참여했다.<sup>71)</sup> 한편 姜秉秀는 1913년 蔡基中이 주도하는 豐基 光復團의 단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權秉七·趙鏞弼·金聲秋 등도 모두 義兵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각기 醴泉과 義城에 거주하면서 밀착된 것 같다.<sup>72)</sup> 일찌기 李康季義陣에 참가하였고, 豐基 光復團이나 그 개편된 조직인 大韓光復會의 회원이거나 관련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 확실한 자료가 없어 모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趙鏞弼의 경우에는 李康季義陣의 招募로 참여하는데, 그의 일족인 咸安趙氏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趙鏞弼과 함께 李康季義陣에 참여하는 中樞院 議官 趙鏞九의 경우 座從事로써 이강년의병진을 물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73)</sup>

趙鏞弼은 한말 龍宮縣 內下面 知保村(현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의 執綱으로 화적토벌에 참여하여 탁월한 용력과 의협심으로 명망을 떨친 인물이었다.<sup>74)</sup> 그는 1907년 8월 李康季이 창 의하자 招募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그의 경력은 의병동료들과 국권회복운동에 참가하여 豐基 光復團, 民團組合, 大韓光復會와 연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단조합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보면 李康季義陣에 참여한 의병 출신이며, 대부분 보수적인 양

70) 朴貞洙, 《雲崗先生倡義日錄》, 將任錄.

71)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72)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에 의하면 “義城郡面不詳毛倉里 權秉七”은 현재 義城郡 多仁面 毛倉里이며, “同道郡面不詳佛億里 趙鏞弼”은 현재 醴泉郡 知保面 知保里이며 속칭 佛離基이다. 의성의 모창리와 예천의 지보리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6km 정도 떨어져 있다.

73) 朴貞洙, 《雲崗先生倡義顛末》, 將任錄.

74) 《皇城新聞》1906년 7월 21일, 〈雜報〉.

반유생의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소백산맥 이남 낙동강 연변의 경상북도 북부지역인 安東·醴泉·聞慶·尙州郡 일대의 인사들이다. 또 이들은 豐基의 光復團, 民團組合, 大韓光復會의 단원이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75)</sup>

## 5. 民團組合의 活動과 理念

의병세력을 조직기반으로 결성된 것이 민단조합이었기에 豐基의 光復團이나 大韓獨立義軍府와 밀착되어 있었고, 상호 연계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大韓獨立義軍府와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李東下는 民團組合을 조직한 뒤 1915년 이후 京城에서 李殷榮·李戊榮(이은영의 實弟)·李鍾晃·權寧直 등과 同志의 糾合과 資金의 調達을 계획하였다. 먼저 권영직을 경상남도 밀양으로 파견하여 朴仁根·金康年·柳永奉을 고종의 칙명이라 칭하고 경성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朴仁根은 義軍府 正尉, 金康年은 義軍府 參尉, 柳永奉은 義軍府 參令에 임명한다는 사령장을 받고 군자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이들은 밀양으로 귀향, 자금을 마련하여 경성으로 오는 도중 성환역에서 피체되었다.<sup>76)</sup> 이때 박인근·김강

### 請褒趙氏

慶北 醴泉 金海 龍宮 安允洙氏 등이 內部에 請願하되 '업드려 아뢰옵건대 5·6년내로 火黨과 義擾가 百般으로 侵虐하와 백성들이 삶을 영위하지 못함은 이미 정부에서도 洞燭하였사온즉 다시 번거로이 말씀드리지 않겠사오나 龍宮에 거주하는 前參奉 趙鏞弼이 평소 膽略과 義氣가 있어 마을의 장정을 규합하여 賊魁 馬將軍과 閔中軍 등을 討捕하여 砲殺하거나 埋殺함에 列郡이 의지하여 편안하지 되고 農商을 하는 백성들이 비로소 편히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므로 부근 6·7郡이 趙氏의 義勇과 效勞를 仰慕하와 褒賞이 없다는 것은 不可하다 하여 政府와 內部에 보書を 올림에 단지 嘉尙二字로써만 적어 내려주니 어찌 勳獎하는 道理라 할 수 있사오리까?, 이에 감히 內部大臣께 仰願하니 밝히 살피시어 특별히 觀察府에 訓令하여 趙鏞弼로 하여금 討捕의 직임에 差出하여 그 郡 백성들의 安堵를 보전할 수 있게 하라고 하였더라.

75) 안동의 權準興(佳谷, 大韓光復會), 예천의 尹昌夏(新豐)·趙鏞弼(知保)·鄭鏞華(豐壤, 大韓光復會), 문경의 李東下(東魯)·金洛文(東魯)·李湜宰(加恩, 民團組合)·李殷榮(聞慶, 大韓獨立義軍府), 상주의 蔡基中(咸昌, 대한광복회), 영주의 林世圭(일명 林鳳柱, 鳳峴)·趙在夏(豐基)·鄭雨豐(豐基 大韓光復會)·金東鎮(豐基)·鄭敦夏(豐基, 大韓獨立義軍府) 등이다.

년·유영봉이 받은 義軍府의 正尉·參尉·參令은 大韓獨立義軍府의 官制였다.<sup>77)</sup> 그리고 金洛文의 경우에도 大韓獨立義軍府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78)</sup>

대한독립의군부는 1913년 1월 호남지역에서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여 1914년에는 거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었다. 그리고 독립의군부 활동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管見》을 격문으로 전국에 배포하였는데, 민간조합에서도 이 관견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밀착된 것 같다.<sup>79)</sup>

한편 豐基의 光復團의 단원들과는 한층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16년 10월 金洛文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강원도 영월의 중석광 운영자금을 강탈하기 위해 蔡基中 등 부하 10여 명을 광부로 위장하여 파견하고, 곧이어 李湜宰와 趙禹卿(趙在夏)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sup>80)</sup> 채기중은 豐基 光復團의 중심인물이다. 그리고 李東下의 경우에도 일찌기 李康季義兵陣에 참여한 바 있는 義城의 權秉七, 醴泉의 趙鏞弼, 義

76) 大正七年三月十一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이 사건은 1916년 3월 박인근·이종황 등은 피체되어 동년 4월 징역 3월에 처해졌고, 이동하는 도주하였다. 이때 이동하는 李春山으로 변성명하였던 것 같다.

77) 참고로 大韓獨立義軍府의 官制를 보면 다음과 같다.

大韓獨立義軍府 官制

都 總 將 (從一品 陸軍副將)	參謀總約長 (從一品 成均館大提學)
司令總將 (正二品 陸軍副將)	參謀副約長 (正二品 成均副提學)
巡撫總將 (正二品 陸軍副將)	參謀約長 (從二品 成均直提學)
觀察使 (從二品 陸軍參將)	道約長 (從二品 成均提學)
府 使 (正三品 陸軍參令)	府約長 (正三品 成均學士)
郡 守 (正三品 陸軍正尉)	郡約長 (正三品 成均學士)
鄉 長 (正六品 陸軍參尉)	鄉約長 (正六品 成均學士)
面 長 (七品 正 校)	面約長 (七品 學官)
里 長 (八品 副 校)	里約長 (八品 教官)

78)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79)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管見〉은 1912년도에 쓰여진 《遜軒遺稿》의 관견과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며, 末尾에 “慶北民團組合之印”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다.

80)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城의 金聲秋 등과 도만하였고, 權秉七·趙鏞弼·金聲秋 등이 광복단이 참여함으로써 밀착된다고 할 수 있다.<sup>81)</sup>

그리고 民團組合의 결성을 전후하여 團員들은 의병의 잔존세력 내지 그들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李東下의 경우를 보면, 渡滿하기 이전 1911년 4월 盧炳稷과 같이 부하들을 이끌고 豐基 동지에서 부호들을 대상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년 7월에는 盧炳稷·韓翌源 등과 尙州邑을 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또 李東下는 동년 10월 20일 盧炳稷(상주)·具東植(보은)·孫日鉉(경산)·姜鳳周(연산)·金正五 등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sup>82)</sup> 한편 李滉宰의 경우에도 그는 1914년 11월 崔旭永·姜秉秀 등과 같이 忠北 제천 近北面에서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100여 円을 강탈하였고, 충북·경북지역에서 同志를 규합하기도 하였다. 이때 면사무소의 습격은 國權恢復을 계획하고 義兵을 준비하고 있던 崔旭永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sup>83)</sup> 김낙문의 경우에도 盧炳稷·金東淵·姜秉秀 등 10여 명과 함께 그의 집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sup>84)</sup>

이와 같이 의병세력을 기반으로 조직된 민단조합은 豐基 光復團이나 大韓獨立義軍府와 연계되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군과 군자금의 모집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sup>85)</sup> 民團組合의 활동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잔여의병세력이 국내에서 독자적인 武力鬭爭을 모색한 것이었으며,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이념도 봉건왕조의 전제군주제를 회복하려는 복벽적인 것이었다. 民團組合의 이러한 측면은 大韓獨立義軍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의병전쟁에 참여한 양반

81) 大正 7年 3月 11日, 高第5044號, 〈不穩言動者發見處分の件〉,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篇》(一), p. 50.

82) 위와 같은 자료.

83) 위와 같은 자료.

84) 위와 같은 자료.

85) 趙東杰, 〈大韓光復會의 結成과 그 先行組織〉, 《韓國學論叢》 5, 1982. 〈大韓光復會 研究〉, 《韓國史研究》 42, 1983. 慎鏞廈, 〈申采浩의 光復會 通告文과 告示文〉, 《韓國學報》 32, 1983 가을호. 朴永錫, 〈大韓光復會 研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申圭秀, 〈大韓獨立義軍府에 대하여〉, 邊大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5. 李相燦, 〈大韓獨立義軍府에 대하여〉, 李載驥博士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1990.

유생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 의병전쟁의 이념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의병전쟁계열의 독립운동단체가 무력투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이념은 共和政의 실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民團組合은 조선왕조의 復僻을 주장하는 復古主義자가 의병전쟁의 전통과 맥을 계승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1910년대 復僻論者로 조선왕조의 재건을 지향하던 독립운동세력은 점차 운동권에서 탈락하였고, 1919년 3·1독립운동을 기점으로 점차 투쟁역량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919년 儒林團의 獨立請願運動은 보수유림들이 한말 국제공법에 의존해서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外交의인 方略의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1924년 儒林團의 軍資金募集事件은 결국 武裝鬭爭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려는 노선으로 선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림들의 최후 모습이었다.<sup>86)</sup>

## 6. 맺 음 말

1910년대 전후 활동기반을 상실한 국권회복운동의 주류는 만주나 노령의 獨立運動基地로 이동하였고, 국내의 殘餘勢力은 국외 독립운동세력이 목표로 하고 있는 武力鬭爭을 支援하여, 무력투쟁의 최후 목표인 國內進攻作戰이 감행될 때 이에 呼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내 독립운동의 잔여세력으로 결성된 독립운동단체는 만주 독립운동이 추구한 무력투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10년대 경상도지방에서 조직된 의병전쟁계열의 독립운동단체는 풍기광복단·대한광복회·민단조합이었고, 계몽운동계열의 독립운동단체는 대동청년단·조선국권회복단이었다.

民團組合은 1915년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밀결사로 의병전쟁

86) 《心山遺稿》卷 5, pp. 309~316 및 pp. 336~337.

1919년 유림단의 독립청원운동은 소위 巴里長書事件을 말하며, 1924년 유림단의 군사금모집사건은 북경에서 李會榮 등과 상의하고, 새로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여, 산업을 일으키고 청장년을 훈련시켜 독립군을 편성 국내에 진공하려는 계획하에, 황무지 3만 정보를 확보하고 그 개간자금을 모집하려던 것이다.



계열의 인사들이 조직하였다. 즉 한말 이강년의병의 잔여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獨立運動勢力을 지원하기 위해 동지의 모집과 군자금의 모집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豐基 光復團, 충청·전라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大韓獨立義軍府의 활동을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1918년 민단조합사건이 노출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조합원을 비롯한 관련자는 李康季義陣에 참여한 李東下·李殷榮·金洛文·李湜宰·李世永 등 의병출신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양반유생의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보면 소백산 이남 낙동강 연변의 경북 북부지역인 안동·예천·문경·상주 등지의 인사들이다.

民團組合은 조선왕조의 復讐를 주장하는 復古主義者가 의병전쟁의 전통과 맥을 계승하고 있었다. 의병전쟁계열의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회와 달리 민단조합은 그 지향하는 이념이 달랐다.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의병전쟁계열의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지만, 박상진을 비롯한 선각적인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외 정세를 깊이 인식할 수 있었고, 공화주의 이념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단조합은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1914년까지도 의병활동을 전개하면서 국권회복을 모색하고 있었고, 의병전쟁의 전통과 맥을 계승하여 결성된 단체였으므로 보수적인 복벽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민단조합은 1914년 조직이 파괴되는 대한독립의 군부와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의병전쟁계열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독립의군부의 〈管見〉을 민단조합도 채택하였다는 사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管見〉이 민단조합의 활동과 강령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